

## 광주시, 2022년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선정

기업성장사다리 첫 단계로 지역 유망중소기업 7곳 지정  
연구개발(R&D) 기획·신기술 사업화·자금 등 맞춤 지원

광주시는 지역 경제를 견인할 '2022년 예비(PRE)-명품강소기업' 7곳을 선정하고 14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제6기로 ㈜텐바이오, ㈜엔퍼스, ㈜승광, ㈜전진티티에스, ㈜하이콤, 한국광학기술, 21세기메디칼㈜이다.

예비(PRE)-명품강소기업은 광주시가 중앙정부와 연계해 운영중인 기업성장사다리 중 첫 단계로, 명품강소기업보다 규모는 작지만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업(식식서비스

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 6월24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21개 업체가 신청해 서류심사, 발표평가·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은 지정기간 2년 동안 기술력 확보를 통한 신속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사회가치 경영(ESG 경영)' 준비 등 기업 성장 목표와 성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한, 시와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신용보증기금 등 23개 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의 협업을 통한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한층 높아진 기술력으로 성장을 위한 체계를 잡아 기업성장사다리 다음 단계인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명품강소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7년 예비(PRE)-명품강소기업 지원사업 시행 이후, 15개사가 명품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광주시 시책인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지역스타기업 61개사, 수출 선도기업인 글로벌강소기업 34

개사, 세계적 강소기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6개사 등 중앙정부 중소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기업 맞춤형 사업을 통해 예비 명품강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과 고용률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더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김대중 전남교육감 취임 첫 기자회견 '무한 책임교육' 천명

4대 지표·3대 과제 제시... "교육격차 해소·교육력 제고 현안에 총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4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분권과 균형으로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다"며 "무한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2023년 인구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소멸은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 최대의 과제이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공동 대응해 전남교육 대전환의 핵심 주춧돌인 전남교육기본소득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목표와 정책 방향으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을 양성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4대 지표로는 △참여 협력 연대의 교육공동체 △질문 탄

성 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상상도 전 창조 미래교육 △공정 안전 존중의 신뢰행정을 제시했다. 또한,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학력 향상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을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내세웠다. 당면 현안인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가장 우선돼야 할 점은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라며 "학생의 배움은 물론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의회와 협력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력 제고를 위한 실천적 과제로는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개인별 학력진단과 지원을 위한 평가 실시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체계적인 진학지원 시스템 구현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축소, 교원 정원 감축 등 분권과 균형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4일 도교육청 청사 중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분권과 균형으로 교육과 보육에 대한 무한 책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교육 수요와 지역별 교육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교원 정원 감축은 고교학점제 추진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기백관 기자

기아 AutoLand광주 친환경 물품 제작 전달  
기아 AutoLand광주(공장장 박래석)는 지난 13일 임직원의 탄소 저감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해 알리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시했다. 기아 AutoLand광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임직원봉사단의 참여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할 친환경 주방세제와 물비누를 제작했다. 이어 전달식을 갖고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직접 만든 친환경 주방세제와 물비누를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5개구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기아 AutoLand광주 임직원봉사단이 만든 친환경 주방세제와 물비누는 소비자가 가져온 다회용기에 제품의 알맹이만 판매하고, 분리수거해온 쓰레기는 모아서 재활용하는 제로웨이스트샵인 알맹상점에서 원재료를 구매해 제작했다. 기아는 이를 통해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저감활동에 대해 알리고, 지역사회에 탄소저감 활동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25<sup>th</sup> Muan Lotus Festival

2022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 선정

제 25회  
**무안 연꽃축제**

연꽃의 향기! 백련의 사랑!  
사랑이 이루어지는 회산백련지

2022. 07.21(목) ▶ 07.24(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